

삼성전자, TB급 SSD 대중화 '포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글로벌 서밋'서 보급형·기업용 등 5개 신제품 선보여 최첨단 낸드 플래시 기술 도입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삼성전자가 테라바이트(TB)급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대중화 시대를 연다.

테라바이트급 용량을 적용한 SSD 제품을 대거 출시해 1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낸드 플래시 기술을 자사 SSD 제품에 도입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3 삼성 SSD 글로벌 서밋' 행사 자리에서 고성능 보급형 제품 1TB SATA SSD(840 EVO), 기업용 초고속 스토리지 1.6TB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SSD(XS1715) 등 5개 신제품을 선보였다.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1TB 용량을 적용한 840 EVO다. TB급 SSD로는 처음 보급형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했다.

840 EVO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양산한 10나노급 128기가비트(Gb) 고속 낸드플래시를 최초로 채택한 제품이다. 기존 840 SSD 대비 연속 쓰기 성능을 3배 이상 높였다.

SSD의 취약점이었던 용량 문제를 해결해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대체할 것

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내달부터 세계 주요 시장에 840 EVO를 우선 선보인 후 신형 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기업용 SSD 시장 공략을 위한 2.5인치 NVMe SSD인 XS1715도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XS1715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XS1715는 종전 고사양 SATA SSD보다 10배 이상 빠른 읽기 성능을 구현했다.

PCIe 2.0 인터페이스 기반 SSD에 비해 두 배 빠른 PCIe 3.0 인터페이스를 채택했으며,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는 NVMe 기술도 적용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삼성전자는 울트라북부터 기업용 서버까지 적용할 수 있는 SSD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12개국 매체와 파워블로그 150여명이 참석해 삼성 전자 차세대 SSD 전략에 주목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은 "한층 빨라진 1TB SSD를 출시해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삼성전자가 출시한 1TB 용량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840 EVO'를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 483억달러 2년 연속 900억달러 돌파 가능성 높여

작년보다 12% ↑ ...반기 기준 최대
전자·전기기계부품이 수출 주도

일본 수입 의존도 최저 수준 기록
對중국 수출 집중도도 완화돼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입 실적 (단위: 억달러)	
구분	소재부품(증가율)
수출	1300(5.2%)
수입	817(1.5%)
무역흑자	483(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이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흑자 900억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300억달러, 수입은 1.5% 늘어난 817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흑자는 483억달러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 흑자다.

소재부품 산업은 올 상반기 0.6%에 그친 전 산업 수출 증가율을 8배 이상 웃돌며 총 수출의 47%를 차지했다. 무역흑자도 전체 196억달러의 2.5배에 달했다. 분기별로는 지난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무역흑자 200억달러를 상회했다.

상반기 대 일본 수입 의존도는 21%로 반기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일 수입 의존도는 2010년 25.2%, 2012년 23%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 집중도는 완화됐다. 대 중국 수출 집중도는

2010년 36.3%에서 2012년 34.1%, 올 상반기 33.9%로 점차 하락하는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12.8%), 전기기계부품(17.9%), 수송기계부품(4.2%), 비금속광물(45.4%) 등이 상반기 수출을 주도했다. 1차금속(-15.4%)과 섬유(-0.8%) 등은 감소세였다.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부품, 화합물·화학 등은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비금속광물은 적자였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도 소재부품 산업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일본 아베노믹스 영향과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가 있지만 엔저 추세 약화, 중국 시장 재고 해소, 수요 산업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년 연속 소재부품 산업 무역흑자 9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제3차 소재부품 산업 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을 내용을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LGD, 2분기 영업이익 3659억원 '어닝 서프라이즈'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는 지난 2분기 6조 5721억원의 매출액과 3659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 1분기보다 3%가량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갑절 이상 늘어난 3659억원을 달성했다.

보급형 초고선명(UHD) TV 시장 대응이 늦었고, 면적당 판매가격이 높은 중소형 패널 사업은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프리미엄·대형 TV용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고부가 차별화 제품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50%대 정도였지만 2분기에는 60% 이상을 차지했다. 2분기 LCD 판매량은 지난 분기 대비 약 9% 증가한 889만㎡를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 제품별 판매 비

프리미엄 TV용 제품 판매 호황
1분기보다 갑절 이상 늘어

면적당 판매가격 높은 중소형 패널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액 소폭 감소

중은 각각 TV용 LCD 패널 51%, 모니터용 21%, 노트북PC용 11%, 스마트패드용 7%, 모바일용 10%다.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이후 보급형 UHD 시장 공략으로 실적 고평행진을 잇는다는 전략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동반성장 성공 비법 '대화가 필요해'

삼성전기, 협력사 찾아다니며 릴레이 간담회 열어

삼성전기(대표 최지준)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찾아가는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경영진이 직접 나서 비전과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320개 1, 2차 협력사들과 상세히 공유하며 시장 동향, 기술 협업, 경쟁

력 강화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회사는 7월 한 달간 삼성전기 협력회사 협의회 분과위원회로 4개 차수로 구분하고 2차 협력사들까지 포함해 협력사 간 소통과 기술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1일 소재화공·전기전자 분야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18일 조립기구, 23

정호영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엄가형 UHD 패널에 대한 판단 오류로 전체 시장의 80% 가량을 대만 경쟁사에 빼앗겼다"며 "3분기 이후 프리미엄-엄가형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급 시기도 당긴다. 정 부사장은 "M2 라인 6인치 OLED 패널 양산을 3분기 말로 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애플 등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 기조에 대해서는 "공급망(SCM) 내 입지가 좁아진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3분기에는 중소형 패널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일 설비, 30일 사외생산 협력사들과 소통의 장을 갖는다.

구자현 삼성전기 부사장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상생 협력이 되도록 상생펀드 확대, 연구개발 협업 활동 강화, 녹색경영 기반구축 활성화, 2차 협력회사 지원 확대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상생펀드를 150억원 추가해 총 775억원 규모로 늘리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해 2차 협력사에 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산단공, 대학생 외국인투자기업 현장 방문 진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22일 지역 대학생과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 톰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아반테스트코리아를 방문하는 '제1회 지역 대학생 외국인투자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방문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확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다.

1회 행사는 22일 공주대 재학생 40여명이 천안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수 외투기업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톰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와 아반테스트코리아를 찾아 기업 현황과 생산 제품을 소개받고 채용·복지후생 정책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산업단지공단은 외투기업 현장 방문 행사로 해당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우수 인력과 기업 간 연계로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뉴스 브리핑

'메육살' 제품군, 타클라마칸 골드 추가

한국마크(대표 미하엘 그룬트)는 자사 안료 브랜드인 '메육살'에 타클라마칸 골드 색상을 추가해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육살 브랜드는 자동차나 플라스틱 코팅에 적합한 안료로, 기존에는 와히바 오렌지 색상을 선보인 바 있다.

특수 카비톨 및 내후처리(CWT) 기술을 적용해 자동차와 플라스틱 같은 고기능성 제품의 코팅제로 적합하다.

수성 코팅제에 첨가하면 부동화 피막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사업진단회의서 경영방식 재검토

태광산업(대표 최중재)은 '품목별 사업진단회의'를 열고 기존 사업 경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주에 걸쳐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태광 리포메이션'을 목표로 하루에 한 품목씩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새 전략을 수립 중이다. 최종재 사장과 각 사업 분야 본부장, 사업부장, 공장장, 영업팀장, 기타 지원부서 임원이 모두 참석한다. 탄소섬유, 폴리에스터 원료(PTA), 과산화수소, 나일론, 아크릴, 면방, 모직물 등 10개 사업 분야를 일일이 점검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usiness Integration Platform Service
Gateway for the Enterprise Web Application

사용자 중심의 Enterprise Portal

Go With Saltware BIPS™ EnView®

BIPS enView를 통해 사내의 흩어진 웹기반 업무 환경을 단일 포털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여러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개인화된 업무 및 동료와의 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enview 기본 제공 기능

- 그룹 / 유틸 동적 메뉴관리
- 개인화 / 마이페이지
-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 콘텐츠사이트 관리
- Single Sign On
- UI Theme 관리
- 사용자 권한 관리
- 개인일정관리
- 통합게시판
- 모니터링 및 통계
- 쪽지
- RSS 피드
- 공통코드 관리기능
- Quick Menu

enview 주요 기능

- 사용자 통합인증
- 구인암호화
- 사용통계로그인
- 인증 서비스 로그아웃
-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 지원(Java, .Net, PHP)
- DBMS기반 Ticket Registry(클러스터링 환경 지원)
- RBAC(Role Base Access Control) 기능
- LDAP, X-509 연동
- ActiveX를 사용하지 않아 모든 환경에서 사용



http://www.saltware.co.kr

솔트웨어 주식회사 152-728 서울구 구로구 3동 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901호
Tel : 02-2025-4918 / Fax : 02-2025-4935